

---

# 입원 환아 어머니의 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인 어머니와 다문화가정 어머니 비교를 중심으로

오재우\*, 문영숙\*\*

## A study anxiety of mothers who have hospitalized ill children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korean mothers with multicultural family mothers.

Jaewoo, Oh\*, Youngsook, Moon\*\*

**요약** 본 연구는 환아의 입원으로 인한 한국인 어머니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불안 정도를 파악하여 입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을 감소시키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대전 소재의 K대학병원 소아과에 입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 한국인 어머니 각 100명 총 200명이며,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였다. 연구도구로는 Sielberger(1972)의 STAI를 한국인에 맞게 번역한 김정택(1978)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인 어머니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상태불안 정도는 한국인 어머니의 경우 2.11,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경우 2.17, 기질불안 정도는 한국인 어머니의 경우 2.09,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경우 1.94로 나타났다. 입원 환아 한국인 어머니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불안을 비교해 본 결과 상태불안과 기질불안 모두에서 집단간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불안상황에서 한국어머니와 다문화가정 어머니 둘 다 처치나 치료에 대한 설명이 없을 때 심한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불안 정도는 한국인 어머니 환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다문화가정 어머니 환아의 경우 성별, 입원횟수에 따른 기질불안이( $P<.05$ )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환아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 정도는 한국인 어머니에서는 월평균수입 상태에 따른 상태불안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P<.05$ ), 다문화가정 어머니에서는 검사방법을 인지하게 된 경로에서 기질불안이( $P<.05$ )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환아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어떠한지, 환아의 일반적 특성에 관계없이 자녀의 입원에 대해 대부분의 어머니의 경우에서 불안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환아 어머니의 불안해소를 위한 간호가 적극적으로 계획되어 다양한 간호중재를 개발하여야 한다.

**주제어** : 입원, 아동, 어머니, 다문화가정, 불안

**Abstract** This study, by grasping the degree of anxiety of Korean mothers and multicultural family mothers because of their hospitalized children, was aimed to arrange the basic data for developing the program to help the mothers of Korea and multicultural family reduce the anxiety happening due to the hospitalization of their children and adapt to their environment. Method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a total of 200 people composed of 100 multicultural family mothers, and 100 Korean mothers respectively whose children were hospitalized in the pediatric department of K university hospital located in Daejeon City. And the period of data collection was from Aug 1, 2010 to Aug 31, 2010. As a study tool, the measuring tool of Kim Jeong Taek(1978), which STAI of Sielberger(1972) was adapted to Koreans, was use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WIN 12.0. Results: A result of the state anxiety of the Korean mothers with that of the multicultural family mothers of the inpatient children, Korean mothers 2.11, multicultural family mothers 2.17, result of temperament anxiety showed Korean mothers 2.09, multicultural family mothers 1.94.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anxiety of the Korean mothers with that of the multicultural family mothers of the inpatient children,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groups in both temperament anxiety and state anxiety. In a situation of anxiety, when there was no explanation of the treatment or therapy, both Korean mothers and multicultural family mothers showed the severe anxiety. In the degree of anxiety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mothers of the inpatient children, there was no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 in anxie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inpatient children of korean family mother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tate anxiety according to the state of average monthly income in Korean mothers( $P<.05$ ), however, there was a significant one in temperament anxiety in the course of perceiving a test method in multicultural family mothers( $P<.05$ ). In the degree of anxiety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mothers of the inpatient children,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tate anxiety according to the state of average monthly income in Korean mothers( $P<.05$ ), however, there was a significant one in temperament anxiety in the course of perceiving a test method in multicultural family mothers( $P<.05$ ). Conclusion: Through the results of the study above, no matter what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mothers of the inpatient children are, regardless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inpatient children, it was found out that most of mothers felt anxiety.

**Key Words** : Hospitalization, Child, Mother, Multicultural Family, Anxiety

---

\*건양대학교병원 간호사,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논문접수: 2012년 5월 23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2년 6월 22일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아동은 성장발달하면서 감각하고 사고하며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존재이다[1].

이러한 아동이 입원하는 경우 병원이라는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서의 생활은 아동에게 공포, 염려, 불안을 자아내게 한다[2].

아동이 입원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다양하고 강한 행동반응은 부모에게 큰 부담이 된다[2] [6]. 부모들은 자녀의 입원으로 인한 무력감, 두려움, 죄의식,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다[2] [4]. 특히 어린이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어머니는 아동의 입원과 관련하여 심한 스트레스에 쌓이게 되며 역할 미수행에 대한 죄의식과 더불어 낯선 병원 환경, 불확실한 미래, 증상이나 처치 및 치료로 환아가 당하는 고통, 가정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한 공포 및 좌절감, 입원 시 각종 검사들로 불안한 정서 반응을 나타낸다. 어머니의 불안은 아동의 불안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아동의 낯선 병원생활의 적응과 질병 회복 및 정상적인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5]. 이렇듯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어머니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어머니의 불안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오늘날 지구촌은 개방화와 세계화의 확대로 경제, 사회, 문화등의 역동적인 문화속에서 다양한 인종의 이동 및 결혼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화의 확대에 따라 한국사회의 국제 결혼은 도시와 농촌 지역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이전까지는 국제결혼이란 매우 드문 현상이었으나, 1990년대로 들어오면서 국제 결혼 자체가 크게 증가하였고, 여성보다는 오히려 남성이 더 많이 국제 결혼을 하고 있다 [10].

2004년 총 결혼건수 310,944건 중 국제결혼이 35,447건(11.4%)있고, 그 중 72.2%(25,594)는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고, 나머지 27.8%(9,853)은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이다[14]. 실제로 1990년 619건에 불과하던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 누계는 2006년 30,208건으로 급증하였다.

최근으로 올수록 국제 결혼 중에서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으며 순혈주의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국민의 의식도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 입원도 늘어나고 있다. 이주자가 점차 새 환경에 적응함에 따라 많은 문화적 차이는 점차 극복될 수 있으나 의사소통의 한계, 이로 인한 좌절감에서 결코 자유로워 질 수가 없다[10]. 더욱이 대부분의 여성 이주자들은 공식적 만남에서 필요한 언어기술이 부족하며 어휘 사용능력도 결여되어 있다[7]. 이러한 한계는 병원입원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특히 불안 요소로 작용하며, 이러한 불안은 자녀에게 전달된다. 현재 입원환아 어머니의 불안 정도를 확인한 선행연구가 많이 있지만,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불안 정도를 확인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아과에 입원한 환아를 둔 한국인 어머니와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그들의 불안 정도를 측정, 비교하여 환아를 돌보는 어머니의 간호 요구를 충족시키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시도하였다.

###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병원에 입원한 환아를 둔 한국인 어머니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불안 정도를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병원 입원으로 인한 한국인 어머니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불안 정도를 확인한다.
- 둘째, 병원 입원으로 인한 한국인 어머니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불안상황을 파악한다.
- 셋째, 병원 입원으로 인한 환아 어머니와 환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두 그룹의 불안 차이를 파악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아동이 입원함에 따른 한국인 어머니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불안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0년 8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의 대전시 소재의 K대학병원 소아과 병동에 입원한 환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국인 어머니 105명, 다문화가정 어머니 102명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207명을 편의표출 하였다.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지남력이 있으며 청각이나 언어 및 정신장애가 없는 환아의 어머니로서 다문화가정 어머니인 경우 한국어 읽기가 가능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아의 어머니로 연구에 대한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환아의 어머니 병실에 직접 방문하여 자료가 연구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한 후, 익명과 비밀보장을 약속하였으며, 원하지 않는 경우에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주었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그들이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라도 그들의 남편들이 거부할 경우 참여를 강요하지 않았다.

대상자 207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거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00부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 2.3 연구 도구

일반적 특성은 환아 어머니의 경우는 연령, 교육정도, 직업, 월평균수입, 검사인지정도, 검사방법을 인지하게 된 경로, 환아의 경우는 나이, 성별, 출생순위, 입원횟수를 조사하였다.

어머니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Spielberger (1972)의 STAI를 한국인에 맞게 번역한 김정택(1978)의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 보고형 검사인데 상태불안은 긍정적 문항과 부정적 문항이 각10문항씩 20문항, 기질불안은 긍정적 문항이 7문항 부정적 문항이 13문항으로 총20문항 도합 40문항으로 구성된 4점 척도의 설문지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불안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상태불안의 Chronbach's  $\alpha=.89$ 이었고, 기질불안의 Chronbach's  $\alpha=.77$ 이었다.

### 2.4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 수집은 2010년 8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 책임자가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시행하였으며,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후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직접 작성하게 하였다.

### 2.5 자료 분석 방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한국인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상태불안과 기질불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와 ANOVA로 분석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한국인 어머니의 환아 연령은 6~12 세 40%, 남아가 62%, 출생순위는 첫째가 52%, 입원횟수는 1 회가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환아 연령은 1~3 세는 32%, 남아가 56%, 출생순위는 둘째가 50%, 입원횟수는 1 회가 68%로 가장 많았다. <표 1>

〈표 1〉 환아의 일반적 특성

(n=200)

특성	구분	실수(%)	
		한국인어머니 환아	다문화가정 어머니 환아
나이	1 개월 미만	0 (0.0)	14 (14.0)
	1-12 개월	12 (12.0)	30 (30.0)
	1-3 세	16 (16.0)	32 (32.0)
	3-6 세	30 (30.0)	20 (20.0)
	6-12 세	40 (40.0)	2 (2.0)
	12 세 이상 *	2 (2.0)	2 (2.0)
성별	남	62 (62.0)	56 (56.0)
	여	38 (38.0)	44 (44.0)
출생 순위	첫째	52 (52.0)	46 (46.0)
	둘째	42 (42.0)	50 (50.0)
	셋째	2 (2.0)	2 (2.0)
	넷째 이상 **	4 (4.0)	2 (2.0)
입원 횟수	1 회	48(48%)	68(68%)
	2 회	32(32%)	24(24%)
	3회 이상 ***	20(20%)	8(8%)

\* 12세이상 : 한국인 어머니 환아는 13세 2명, 다문화 가정 어머니 환아는 12세 1명, 14세 1명.

\*\* 넷째이상 : 한국인 어머니 환아는 넷째가 4명, 다문화가정 어머니 환아 넷째 1명, 다섯째 1명.

\*\*\* 3회이상 : 한국인 어머니 환아는 3회가 5명 4회가 3명, 5회가 5명, 10회 이상이 7명, 다문화가정 어머니 환아의 경우 3회가 2명, 4회가 3명, 5회가 1명, 10회 이상이 2명.

한국인 어머니의 나이는 36~40 세가 40% ,교육정도는 고졸이 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은 있다 46%, 월수입은 100~200 만원 34%, 검사인지 정도는 ‘알고 있다’가 84%로 높게 나타났다. 검사방법을 인지하게 된 경우로는 ‘의사에게 들었다’가 84%, ‘간호사에게 들었다’가 20%이었다.

〈표 2〉 환아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n=200)

특성	구분	실수(%) 한국인 어머니	실수(%) 다문화 가정 어머니
연령	21-25 세	2 (2.0)	34 (34.0)
	26-30 세	16 (16.0)	34 (34.0)
	31-35 세	32 (32.0)	16 (16.0)
	36-40 세	40 (40.0)	12 (12.0)
	41 세 이상 *	10 (10.0)	4 (4.0)
교육정도	초졸	0 (0.0)	2 (2.0)
	중졸	21 (2.0)	6 (6.0)
	고졸	58 (58.0)	50 (50.0)
	대졸 이상 **	40 (40.0)	42 (42.0)
직업	있다	46 (46.0)	44 (44.0)
	없다	54 (54.0)	56 (56.0)
월평균수입	100 만원 미만	14 (14.0)	36 (36.0)
	100-200 만원	34 (34.0)	40 (40.0)
	201-300 만원	22 (22.0)	14 (14.0)
	301 만원 이상***	30 (30.0)	10 (10.0)
검사인지 정도	안다	84 (84.0)	60 (60.0)
	모른다	16 (16.0)	40 (40.0)
검사방법을 인지하게된 경로	의사에게 들었다	84 (84.0)	50 (50.0)
	간호사에게 들었다.	20 (20.0)	44 (44.0)
	주위사람에게 들었다	2 (2.0)	4 (4.0)
	책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알았다	4 (4.0)	0 (0.0)
	이전 경험으로알았다	6 (6.0)	2 (2.0)

\*41세 이상 : 한국인 어머니는 42세가 2명, 44세가 3명, 45세가 5명,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43세가 2명, 45세가 2명.

\*\* 대졸이상 : 한국인 어머니의 경우 대졸이 28명, 대학원이 12명,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대졸이 40명, 대학원이 2명.

\*\*\* 301만원 이상 : 한국인 어머니의 경우 301-400만원이 10명, 401-500만원이 18명, 500만원이상이 2명,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301-400만원이 9명, 401-500만원이 1명.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나이는 21~25 세, 26~30 세가 34%로 가장 많았고, 교육정도는 고졸 50%. 직업은 없다가 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월수입은 100~200 만원 40%, 검사인지 정도는 ‘알고 있다’가 60%로 높았으며, 검사방법을 인지하게 된 경로로는 ‘의사에게 들었다’가 50%, ‘간호사에게 들었다’가 44%로 나타났다.<표 2>

### 3.2 입원 환아 어머니의 불안정도

한국인 어머니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상태불안 정도는 4점 만점에 평점 평균이 한국인 어머니의 경우 2.11점,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2.17점, 기질불안 정도는 한국인 어머니의 경우 2.09점,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경우 1.94점으로 나타났다.

입원 환아의 한국인 어머니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불안을 비교해 본 결과 상태불안과 기질불안 모두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3>

〈표 3〉 한국인 어머니와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불안 비교

(n=200)

	한국인 어머니	다문화가정 어머니	t	P
	M±SD	M±SD		
상태불안	2.11 ± .36	2.17 ± .36	.79	.42
기질불안	2.09 ± .49	1.94 ± .38	-1.67	.09

### 3.3 환아 입원과 관련된 불안상황

불안상황에서 한국인 어머니가 심한 불안을 느낀 경우는 처치나 치료에 대한 설명이 없을 때가 48%로 가장 높게 불안을 느꼈으며, 근육주사 혈관주사 맞을 때, 검사나 처치시 의료진이 나가있으리라고 할 때, 병원에 처음 왔을 때, 혈액검사를 할 때, 이상한 기계나 기구를 볼 때, 가슴에 X-선 사진을 찍을 때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에는 치료나 처치에 대한 설명이 없을 때가 40%로 가장 높게 불안을 느꼈으며, 검사나 처치시 의료진이 나가있으리라고 할 때, 혈액검사를 할 때, 근육주사 혈관주사를 맞을 때, 병원에 처음 왔을 때, 이상한 기계나 기구를 볼때, 가슴에 X-선 사진을 찍을 때 순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한국인 어머니,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불안상황

불안상황	한국인 어머니 실수(%)				다문화가정 어머니 실수(%)			
	심한 불안 느낌	약간 불안 느낌	불안느끼지 않음	경험 없음	심한불안 느낌	약간불안 느낌	불안느끼지 않음	경험없음
병원에 처음 왔을 때	22 (22.0)	54 (54.0)	22 (22.0)	2 (2.0)	30 (30.0)	42 (42.0)	28 (28.0)	0 (0.0)
이상한 기계나 기구를 볼 때	18 (18.0)	60 (60.0)	18 (18.0)	4 (4.0)	30 (30.0)	50 (50.0)	14 (14.0)	6 (6.0)
가슴에 X선 사진을 찍을 때	14 (14.0)	34 (34.0)	50 (50.0)	2 (2.0)	8 (8.0)	48 (48.0)	36 (36.0)	8 (8.0)
혈액검사를 할 때	20 (20.0)	48 (48.0)	28 (28.0)	4 (4.0)	38 (38.0)	44 (44.0)	14 (14.0)	4 (4.0)
근육주사 혈관주사 맞을 때	38 (38.0)	42 (42.0)	12 (12.0)	8 (8.0)	34 (3.0)	50 (50.0)	12 (12.0)	4 (4.0)
검사나 처치시 의료진이 나가있으 라고 할 때	34 (34.0)	48 (48.0)	12 (12.0)	6 (6.0)	38 (38.0)	42 (42.0)	4 (4.0)	16 (16.0)
치료나 처치에 대한 설명이 없을 때	48 (48.0)	36 (36.0)	8 (8.0)	8 (8.0)	40 (40.0)	40 (40.0)	6 (6.0)	14 (14.0)

3.4 입원 환아 및 환아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

환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을 살펴본 결과 한국인 어머니의 환아의 경우는 연령, 성별, 출생순위, 입원횟

수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아이의 성별(p<.05), 입원횟수(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표 5>

〈표 5〉 환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정도

특성	구분	한국인 어머니의 환아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환아									
		상태불안			기질불안			상태불안			기질불안						
		M±SD	F	P	M±SD	F	P	M±SD	F	P	M±SD	F	P				
연령	1 개월 미만	-	-	-	-	-	-	2.00	0.38	-	-	1.99	0.48	-	-		
	1-12 개월	2.15	0.42	-	2.20	0.60	-	2.13	0.39	-	-	1.95	0.36	-	-		
	1-3 세	2.23	0.24	0.31	1.89	0.36	0.56	2.24	0.35	0.98	0.43	2.00	0.37	0.28	0.91		
	3-6 세	2.06	0.41	-	2.17	0.58	-	2.17	0.33	-	-	1.84	0.45	-	-		
	6-12 세	2.10	0.35	-	2.10	0.45	-	2.75	.	-	-	1.70	.	-	-		
	12 세 이상	2.10	.	-	1.80	.	-	2.35	.	-	-	2.05	.	-	-		
성별	남	2.16	0.37	1.28	0.20	2.06	0.57	-0.62	0.53	2.16	0.37	-0.26	0.79	1.96	0.42	0.38	0.04*
	여	2.03	0.31	-	-	2.15	0.33	-	-	2.03	0.31	-	-	1.92	0.34	-	-
출생 순위	첫째	2.13	0.38	-	-	2.09	0.44	-	-	2.15	0.41	-	-	2.00	0.36	-	-
	둘째	2.10	0.31	1.00	0.40	2.05	0.57	0.79	0.50	2.20	0.34	0.09	0.96	1.88	0.41	0.67	0.57
	셋째	2.50	.	-	-	2.75	.	-	-	2.05	.	-	-	1.80	.	-	-
	넷째 이상	1.77	0.53	-	-	2.35	0.07	-	-	2.15	.	-	-	2.30	.	-	-
입원 횟수	1 회	2.12	0.38	-	-	2.07	0.46	-	-	2.20	0.33	-	-	2.94	0.39	-	-
	2 회	2.15	0.34	0.27	0.76	2.02	0.40	0.79	0.45	2.15	0.44	0.88	0.42	1.82	0.33	3.46	0.04*
	3회 이상	2.04	0.35	-	-	2.27	0.68	-	-	1.95	0.44	-	-	2.38	0.13	-	-

환아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을 살펴본 결과 한국인 어머니의 상태불안은 월평균수입(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지만, 연령, 교육, 직업, 검사인지, 검사방법을 인지하게 된 경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다문화가정 어머니에서는 연령, 교육, 직업, 월평균수입, 검사인지, 검사방법을 인지하게 된 경로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국인 어머니의 기질 불안은 연령, 교육, 직업, 월평균수입, 검사인지, 검사방법을 인지하게 된 경로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다문화가정 어머니에서는 검사방법을 인지하게 된 경로(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표 6>

####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환아의 입원으로 인한 한국인 어머니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불안 정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환아가 입원할 경우 병원 환경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대해 한국인 어머니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불안 정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 결과 환아의 입원과 관련하여 한국인 어머니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상태불안 정도는 4점 만점에 평점 평균이 한국인 어머니의 경우 2.11점,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2.17점, 기질불안 정도는 한국인 어

<표 6> 환아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정도

특성	구분	한국인 어머니						다문화가정 어머니									
		상태불안			기질불안			상태불안			기질불안						
		M±SD	F	P	M±SD	F	P	M±SD	F	P	M±SD	F	P				
연령	21-25 세	2	.		2.80	.		2.26	0.34		1.98	0.37					
	26-30 세	2.09	0.36		2.40	0.61		1.99	0.42		1.87	0.41					
	31-35 세	2.00	0.28	0.70	0.59	2.00	0.34	1.66	0.17	2.27	0.26	1.64	0.18	2.06	0.40	0.45	0.77
	36-40 세	2.20	0.39			2.00	0.54			2.29	0.34			1.87	0.46		
	41세 이상	2.16	0.48			2.16	0.29			2.22	0.17			2.05	.		
교육	초졸	-	-			-	-			2.25	.			1.65	.		
	중졸	2.55	.	1.97	0.15	2.25	.	0.10	0.89	2.40	0.50	0.40	0.74	2.31	0.48	1.34	0.27
	고졸	2.04	0.37			2.11	0.50			2.16	0.39			1.97	0.35		
	대졸 이상	2.20	0.31			2.06	0.51			2.15	0.33			1.88	0.40		
직업	있다	2.12	0.38			2.21	0.45	1.29	0.20	2.17	0.33	0.00	0.97	1.89	0.44	0.73	0.39
	없다	2.12	0.34	0.03	0.97	2.02	0.51			2.17	0.39			1.99	0.34		
월 평균 수입	100 만원 미만	2.16	0.43			1.93	0.24			2.18	0.36			2.03	0.41		
	100-200 만원	1.95	0.34			2.23	0.61	0.83	0.48	2.14	0.39	0.61	0.60	2.02	0.34	2.61	0.06
	201-300 만원	2.08	0.27	2.95	0.04*	2.10	0.37			2.09	0.37			1.61	0.26		
	301 만원 이상	2.30	0.33			2.01	0.51			2.37	0.28			1.83	0.42		
검사 인지	안다	2.10	0.37			2.08	0.51	-0.51	0.61	2.20	0.39	0.85	0.39	1.96	0.40	0.38	0.70
	모른다	2.19	0.28	-0.65	0.51	2.18	0.43			2.10	0.31			1.91	0.37		
검사 방법을 인지 하게 된 경로	의사에게 들었다	2.08	0.36			2.12	0.51			2.17				2.00			
	간호사에게 들었다	2.10	0.44			2.13	0.27			2.16				1.81			
	주위사람에게 들었다.	2.10	.	0.48	0.81	1.80	.	1.21	0.31	2.40		0.49	0.68	2.35		3.62	0.02*
	책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다	2.32	0.24			2.60	0.21			-	-			-	-		
	이전 경험에 의해 알게 되었다	2.11	0.16			1.85	0.85			1.85	.			2.75	.		

머니의 경우 2.09점,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1.94점으로 나타났다.

입원 환아 한국인 어머니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불안을 비교해 본 결과 상태불안과 기질불안 모두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점은 평균 정도의 불안 정도를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어머니가 한국인이든 다문화 가정 어머니이든지간에 또한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어떠하든지 자녀의 입원에 대해 대부분의 어머니는 필연적으로 불안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불안상황에서 한국인 어머니의 경우 심한 불안을 느낀 경우는 처치나 치료에 대한 설명이 없을 때가 48%로 가장 높게 불안을 느꼈으며, 근육주사 혈관주사 맞을 때, 검사나 처치시 의료진이 나가있으라고 할 때, 병원에 처음 왔을 때, 혈액검사를 할 때, 이상한 기계나 기구를 볼 때, 가슴에 X-선 사진을 찍을 때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에는 치료나 처치에 대한 설명이 없을 때가 40%로 가장 높게 불안을 느꼈으며, 검사나 처치시 의료진이 나가있으라고 할 때, 혈액검사를 할 때, 근육주사 혈관주사를 맞을 때, 병원에 처음 왔을 때, 이상한 기계나 기구를 볼 때, 가슴에 X-선 사진을 찍을 때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에게 불안 요소는 첫 입원과 낮은 환경에서 설명 없이 환아에게 처치되는 각종 검사 등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환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아이의 성별( $p<.05$ ), 입원횟수( $p<.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입원 경험이 없는 환아 어머니의 불안정도가 높은 것은 입원 경험이 있는 어머니에 비해 입원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환경에의 낯설음, 불편감, 의료처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정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환아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을 살펴본 결과 한국인 어머니의 상태불안은 월평균수입( $p<.05$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지만, 연령, 교육, 직업, 검사인지, 검사방법을 인지하게 된 경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다문화가정 어머니에서는 연령, 교육, 직업, 월평균수입, 검사인지, 검사방법을 인지하게 된 경로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연령, 교육, 직업 유무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4]와 [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월

평균수입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인 [11]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한 달 가족의 수입이 높으면 경제적 안정에서 오는 안정감에서 불안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되며, 어머니가 한국인이든 다문화 가정 어머니이든지간에 또한 어머니의 사회적 배경이 어떠하든지 자녀의 입원에 대해 대부분의 어머니는 필연적으로 불안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상태불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병원에 처음 왔을 때 느껴지는 불안정도에 심한불안, 약간 불안하다에 70%이상의 대상자가 답하였다는 것이다.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에 처음으로 접해보는 것 자체만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불안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입원시점에서 환경적응 프로그램(비언어적, 언어적 의사소통 등)과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만을 위한 실질적인 간호수행으로 불안을 최소화시키는 실질적인 내용의 간호가 요구되어진다. 또한 간호사는 환아를 포함한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인들을 정확하게 간호 사정하여 불안 해소를 위한 간호중재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환아와 어머니에게 긴장된 환경에 대해 적절하게 적응하도록 도와주며 어머니에게 자신감과 신뢰감을 주고 어머니가 아이를 잘 지지해 줄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환아의 입원으로 인한 한국인 어머니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불안 정도를 파악하고 규명하여 입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을 감소시키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으며,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 어머니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상태불안 정도는 4점 만점에 평점 평균이 한국인 어머니의 경우 2.11점,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경우 2.17점, 기질불안 정도는 한국인 어머니의 경우 2.09점,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경우 1.94점으로 나타났다.

입원 환아의 한국인 어머니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불안을 비교해 본 결과 상태불안과 기질불안 모두에서 집단간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둘째, 불안상황에서 한국인 어머니의 심한 불안을 느낀 경우는 처치나 치료에 대한 설명이 없을 때가 48%로

가장 높게 불안을 느꼈으며, 근육주사 혈관주사 맞을 때, 검사나 처치시 의료진이 나가있으라고 할 때, 병원에 처음 왔을 때, 혈액검사를 할 때, 이상한 기계나 기구를 볼 때, 가슴에 X-선 사진을 찍을 때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에는 치료나 처치에 대한 설명이 없을 때가 40%로 가장 높게 불안을 느꼈으며. 검사나 처치시 의료진이 나가있으라고 할 때, 혈액검사를 할 때, 근육주사 혈관주사를 맞을 때, 병원에 처음 왔을 때, 이상한 기계나 기구를 볼 때, 가슴에 X-선 사진을 찍을 때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을 살펴본 결과 한국인 어머니의 환자의 경우는 연령, 성별, 출생순위, 입원횟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아이의 성별( $p<.05$ ), 입원횟수( $p<.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환아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을 살펴본 결과 한국인 어머니의 상태불안은 월평균수입( $p<.05$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지만, 연령, 교육, 직업, 검사인지, 검사방법을 인지하게 된 경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다문화가정 어머니에서는 연령, 교육, 직업, 월평균수입, 검사인지, 검사방법을 인지하게 된 경로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국인 어머니의 기질 불안은 연령, 교육, 직업, 월평균수입, 검사인지, 검사방법을 인지하게 된 경로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다문화가정 어머니에서는 검사방법을 인지하게 된 경로( $p<.05$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환아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어떠한지,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계없이 자녀의 입원에 대해 대부분의 어머니의 경우에서 불안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환아 어머니의 불안해소를 위한 간호가 적극적으로 계획되어 다양한 간호중재를 개발하여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불안에 대한 연구가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입원 환아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에 대한 검토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더불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 중재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의 실시를 제언하며 국적이 다른 조사를 통해 불

안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무엇인지(언어, 식생활, 문화 등)를 파악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간호중재기법에 대한 활동이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지역 위치는 병원 특성상 다문화가정 어머니에게 나타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배우자의 고연령, 저수입, 재혼, 원거리 거주지 등)에 의해 병원이라는 환경이 다문화가정 어머니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연구도 제언한다.

## 참 고 문 헌

- [1] Vulcan, B. M., & Nikulich-Barett, M.(1988). The effect of selected information on mothers' anxiety levels during their children's hospitalization.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3, 97-102.
- [2] Burling KA, Collip PJ(1969). Emotional response of hospitalized children. *Clinical Pediatrics* 8. 641~646.
- [3] 김영혜 외 5명(2006), 입원소아환자에서 정맥주사 시 통증 및 불안을 경감시키기 위한 중재연구, 대한의료 QA학회지.
- [4] 오가실, 조갑출, 구정아(1996). 입원 어린이의 병상활동과 어머니의 반응 및 요구. *대한간호.제35권 제3호*, 77-78
- [5] 김정택외 1인(1978). STAI 한국 표준화에 관한 연구. 21(11), 69~75.
- [6] 문영숙(1989). 입원 아동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강유진(2007).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조선족 여성결혼생활실태에 관한 연구"한국가족관계학회지.
- [8]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
- [9] 이영자, 신경자, 김기현(1977). 백혈병 환자 어머니의 정서반응에 대한 연구, *중앙의학*,33,2,197-204.
- [10] 이해경.2005. 혼인 이주와 혼인 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 한국 인구학 』.28(1)
- [11] 조윤희(1995). 입원한 환아 어머니의 입원에 대한 반응.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조희(1980), 입원한 환아 어머니의 불안해소를 위한 실험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Clarkel AC, Whitfield W, Cadburg, Sandu(1989).



Anxiety management groups in clinica pediatrics.  
NT, 85(30): 9~52.

- [14] Spielberger, C.D.(1972). Anxiety as an emotional state, Anxiety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N.Y. , Academic Press.
- [15] Rogers M(1970). An introduction to the theoretical basis of nursing .F.A. Davis,Phildaelphia.
- [16] Statistics Korea(2004),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report. from [Http://www.kostat.go.kr](http://www.kostat.go.kr)

**오 재 우(제 1저자)**



- 2000년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학사)
- 2004년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석사)
- 2011년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박사수료)
- 2000년 ~ 현재: 건양대학병원 간호사
- 관심분야 : 가족, 아동, 스트레스,  
양육 행동

· E-Mail: unasn7@konyang.ac.kr

**문 영 숙(교신저자)**



- 1986년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학사)
- 1989년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석사)
- 2002년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박사)
- 1997년 ~ 현재: 건양대학교 간호학  
과 교수
- 관심분야 : 아동간호, 부모-자녀관계
- E-Mail: moon@konyang.ac.kr